

**한국의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Korean Plastic Consciousness of the Contemporary Interior Space in Korea

오인욱* / Oh, In-Wook

Abstract

The three basic elements of human life -clothing, food and shelter- had been evolved through different periods and cultural realms, as their spatial applications show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are manifested through sensibilities only inherent to its specific culture. Especially in the interior spaces, possibilities to approach them in three-dimensional aspects allow formal characteristics to be expressed that are distinct to the country. Formal sensibilities embedded in interior space in Korea also follows such pattern, developed through various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of Korean traditional formal sensibilities, including harmony with nature, simplicity, lightness, real and fake, and principle of harmony are being redefined by spatially expressed in contemporary language. That is, traditional formal sensibilities are filtered through various application methods such as composition, negotiation and modification, accommodating spatial manifestations to be not simply preserved nor replicated, but rather reconstructed through metaphor, symbol, abstraction and contrast.

From this perspective, the Korean traditional formal sensibilities is not a notion fixed in the past, but a distinct perspectives evolving throughout periods of time that are constantly reconsidered and reinterpreted in our interior space. By examining Korean sensibilities manifested in interior space in the both diachronic aspects of tradition vs. contemporary, as well as synchronic aspects among various disciplines simultaneously, we would be able to generate a linkage to the dichotomous categories of tradition and contemporary.

키워드 : 한국적 조형 의식, 정체성, 의식주 공간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의 삶에서 공간은 일종의 용기(用器)의 역할을 한다. 담는 내용물에 따라 각각의 용기는 다양하게 제작되고 사용되어진다. 용기와 마찬가지로 공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인간의 삶의 내용과 형태를 담아왔다. 근대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공간은 주로 주생활(住生活)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은 인간의 탄생, 성장, 결혼, 죽음을 담는 그릇이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衣食住)가 대개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현대화된 인간의 삶에서 집은 더 이상 의식주를 담보해주는 다기능의 공간으로써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인간의 삶은 기능적 필요에 따라 세 부적으로 분화되었고, 소비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간들이 창출되었다.

이렇게 다양해진 의식주 공간을 대상으로 건축이나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전통과 현대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의 연결 고리를 위해 한국적 조형의식의 현대적 수용과 변용, 그리고 공간 표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식주라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세 가지(의식주) 요소의 변화와 각각의 내용이 공간적으로 수용될 때 보여지는 시각적 특성들의 변화, 그리고 전통과 현대적 조형의식의 비교 고찰을 통한 한국적 조형의식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에 연결 고리를 마련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한국적 조형의식이라는 개념을 현대 디자인의 영역에서 현대적으로 적용 또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 본 논문은 2004년도 경원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한 연구결과임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실내공간 중에서 한국적 의식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들을 대상으로 의생활과 식생활 영역은 의상과 음식이라는 오브제¹⁾ 중심으로, 주생활 영역은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간에서 담는 내용과 공간 디자인 자체의 현대적 수용 및 변용을 고찰하여 한국적 조형의식을 분석한다.

한국적 소재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근대화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들을 통해서는 과거 한국이 가지고 있던 조형의식과의 비교고찰이 어렵기 때문인 동시에, 그 고찰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 대상 선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한국적 표현을 추구했다고 판단되는 작품인가의 여부인데, 여기서 한국적 표현을 추구했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한국성 또는 한국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자체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우선적으로 한국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의 정의보다는 한국적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판단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춰 연구의 대상을 선별하고자 한다.

한국적 정체성의 판단기준은 크게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현재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과거 10여년전까지의 작품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한다. 대중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는 대중에게 쉽게 인식되어 있는 브랜드나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선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체성이라는 판단기준은 집단적 판단기준이 아닌 개인인자들에 대한 판단기준이기에 각 주체가 한국적 정체성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작업했는가 여부에 따라 선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잡지나 대중매체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언급이 있었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각 주체가 한국적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다면, 그 결과물 또한 일정 정도 한국적 표현을 했으리라 보아지기 때문이다.

선별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현재적 의미의 한국적 조형의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 조형의식과의 비교고찰을 통해서 현재적 변화의 지점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대상인 실내 공간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적 의생활 공간과 식생활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오히려 공간적 측면보다는 공간에서 담고 있는 내용물 자체에서의 비교검토를 통해 전통과 현대적 조형의식 비교가 가능해질 것

1)대상, 사물, 객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오브제(object)는 일반적으로 미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자연물과 공업제품, 일용품 등의 물체로부터 습관적인 용도와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할 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오브제는 공간에 담기는 내용물을 의미한다. 용기와 용기에 담기는 내용물의 관계를 공간과 오브제의 관계로 보고, 여기서 오브제는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새로운 의미형성의 기제가 된다.

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의생활과 식생활 영역은 의상과 음식이라는 오브제 중심으로 조형의식을 고찰하고, 주생활 영역은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통해 조형의식을 고찰할 것이다.

2. 한국적 정체성 및 조형의식

2.1. 한국적 정체성의 판단 기준

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인자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과는 방법과 내용상에서 차이가 있다. 개별자가 갖는 각각의 속성이 반드시 집단의 속성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자의 속성을 집단화시키는 방법으로는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시 될 것이다. 한국이라는 집단에서 그러한 공통적인 속성을 한국인 한 명 한 명의 개별적 특성에서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개인자가 아닌 범주가 필요해지는데, 여기서 범주란 한국과 관련된 여러 분야²⁾를 의미하고, 그 범주 안에서의 공통 속성을 살펴보는 것이 한국적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의 정체성을 밝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인이 만든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처럼 한국이란 집단이 역사를 통해 공동으로 만들고 지금도 갖고 있는 것들을 분석한다면, 어떤 것들이 한국적인 것인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나 작품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한국적 정체성을 구분 짓는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적 정체성의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다.⁴⁾ 첫째, 한국의 정체성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출발해야하고, 현재의 현상을 중시해야 한다. 즉 정체성의 판단 기준의 하나는 현재성이다. 과거의 역사나 업적이 우리에게 내면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속적인 역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단절된 역사를 메워서 현재성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⁵⁾ 둘째, 한국의 정체성 논의의 대상은 대중적인 것이어

2)한국 문학, 건축, 음악, 미술, 의상, 영화, 서예 등의 분야가 있을 것이고, 각 분야마다 표현 양식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법이나 정신 혹은 작품의 정서나 분위기 측면에서 공통 속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p.37

3)Ibid., p.43, 특히 건축이나 실내디자인 분야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담은 용기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한국인의 실내공간을 분석한다는 것은 한국적인 삶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본 연구에서는 탁석산이 제시한 한국적 정체성의 판단기준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5)이때 필요한 방법은 원형을 그대로 복원시키는 것과 원형을 본으로 삼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거나 변형시킨 형태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눌 것이다.

야 한다. 대중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는 뜻이므로 집단의 정체성 판단에 기여한다. 다수가 좋아하고 염원하고 편하게 느끼는 무엇인가는 즉 시대의 정신이다. 어떤 분야가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현재에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한국의 예술이 아니다. 현재의 한국인들이 비록 외래에서 수입된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유하고 즐기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그 외래문화가 현재의 한국적인 것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적 정체성은 주체성을 통해 확인된다. 주체성이란 표면적인 현상이 아닌 현상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어떤 문화나 제도를 수용하는 태도는 정체성 판단의 한 조건이 된다. 태도의 차이 즉, 주체성은 개별자의 태도이지 집단의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개별자의 주체적 태도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집단의 주체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단이 표출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현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2. 한국적 조형의식의 개념 및 대상

칸트의 선형적 미적 판단기준에 의하면 미의식(美意識)⁶⁾은 개개인이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기준이다. 그러나 개별자가 미적 판단 기준을 선형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이미 그 개별자가 속한 집단의 공통적인 미적 판단기준에 일정 정도는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미의식은 집단의 공통적인 미적 공감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미의식이 발현되는 예술 분야 중 일반적으로 조형을 통한 예술은 물질적인 재료의 유형적인 미(美), 즉 조형미(造形美)를 통해서 구현되고, 이러한 조형미는 개별적인 미적 의식에서 집단의 조형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조형은 물질을 통해 공간 내에서 시각적으로 사람의 심상에 호소되는 형상(form)과 의미⁷⁾이고, 조형의식은 그 조형적 형상과 의미를 지각과정⁸⁾을 통해 주체의 사고체계 내에 저장되고, 조형적 미적 판단을 하거나 조형 작업을 할 때 표출되는 사고 유형이다. 이때 집단이 함께 공유하는 조형원리가 작용한다. 한국인에게는 예로부터 축적되어 온 조형원리와 조형의식이 있

다. 한국만의 고유한 풍토와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서 형성된 조형요소들은 한국적 조형원리와 조형의식에 의해 한국적 조형으로 형성되어왔다. 아래의 표는 한국적 조형 속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을 통해 한국적 조형원리를 역으로 추출해 보고, 그 조형원리를 이끌어내는 조형의식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의 전통적 조형의식

조형요소	한국적 조형 이미지	한국적 조형원리	한국적 조형의식 ⁹⁾
시각형태	곡선(둥근 형태), 두꺼움, 허빈 공간, 추상생략	실용성의 원리 정신성의 원리 함축성의 원리 무와 여유의 원리	결과 실험 탈기교의 맛과 멋 '허'의 조형의식 둥근 형태의 조형의식 단백함의 조형의식
색채	단색(황(黃), 적(赤), 청(靑), 흑(黑), 백(白), 자연색	정신성의 원리 함축성의 원리 자연성의 원리	
빛	온화하고 은은한 빛	밝음의 원리	
재질	자연적 소재(목재, 흙, 종이)	자연성의 원리	
기타 감각(촉각, 운동감각, 청각)	투박함, 느낌, 유연함(운동)	무와 여유의 원리	
시간과 공간적 변형	열림과 닫힘	조형성의 원리 자연성의 원리	

일반적으로 조형 예술을 논할 때는 반드시 3차원적 공간을 전제로 하기 마련이다. 선과 면을 논하고 형태와 질감, 색채, 명도 등을 파악한다는 것은 곧 3차원적인 입체를, 작고 구체적인 부분들로 분석하고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지각은 공간적이다.¹⁰⁾ 조형 원리란 곧 공간의 개념에 대한 인간의 지각 경험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문화권은 그들의 고유한 공간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특징적인 생활공간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공간의 구조와 그에 대한 개념 및 인식 태도를 밝히는 것은 조형 의식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¹¹⁾ 결국, 한국적 조형의식을 고찰한다는 것은 한국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정의한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3. 한국 의식주 분야의 한국적 조형의식 분석

한국적 조형의식을 고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시간적 축을 따라 과거와 현재를 비교 고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라는 고정된 시점에서 다양한 영역을 비교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연구대상의 구체적 공간분석보다는 의식주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 즉 의상과 음식이라는 오브제, 주생활의 구체적인 행위들에서 필요한 공

6)미의식은 미를 창작하거나 감상할 때 나타나는 정신적 의식이다. 미의식은 감각을 통해서 의식화되는데, 감각을 받아들이는 의식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단순 자극으로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둘째, 어떤 의식을 바탕으로 감각을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셋째, 어떤 의식을 바탕으로 감각을 받아들여 그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7)문자가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e)를 통해 구성되듯이, 조형 또한 물질로 이루어진 형상과 그 형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로 구성된다. 특히, 예술적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조형은 필연적으로 조형을 만들어낸 창작자가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형성된다. 이처럼 조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론적 힘은 조형에 내재된 근원적인 힘인 것이다.

8)조형을 지각할 때 조형은 일종의 자극이 되고, 지각과정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된다. 여기서 자극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마음속에 잠재한 감지력을 일깨울 수 있게 있는 외부의 물리적 실재이고, 지각은 정신적 실재이다.

9)본 연구에서는 김영기의 한국인의 조형의식 분류를 참조하였다.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pp.379-391

10)인간은 1차원적, 2차원적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3차원적 공간의 개념에 도달했다. 예를 들어 서양미술은 지오토(Giotto)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3차원적 공간을 표현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중첩하여 공간을 전개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다.

11)Ibid., p.276

간이 전통과 현대라는 시간적 간극을 통해서 어떻게 수용 또는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

3.1. 의(衣)

의복은 생활 문화의 한 단면이며 문화사의 일부이다. 따라서 한 민족의 의생활을 이해하는 것은 그 민족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통한다.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은 현재의 일상의복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복(禮服)이나 한국적인 것을 통해 세계화를 추구하는 일부 의상디자이너의 고급 브랜드로써 점차 그 가치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 의복에 대한 평가 기준이 기능성, 실용성에서 점차 미와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코드로 작용함에 따라, 다양화와 개성화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한복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현대적 수용의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다.

한복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형미는 평면적 재단에서 착용했을 때 사람의 인체에 맞는 입체적인 형태를 띠게 만드는 입체감과 자연스러움에 있다. 한국의 자연적 기후와 민족적인 미적 감각이 그대로 드러난 한복은 풍성한 곡선적인 선을 통해 다른 객체들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조형미가 현대적으로 수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는 다양성과 실용성이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

<표 2> 전통과 현대 한복의 조형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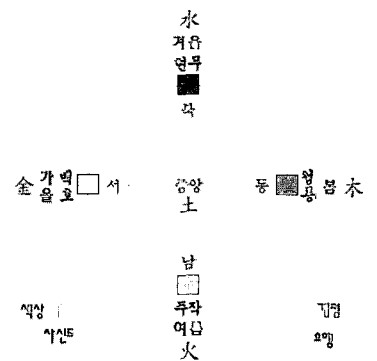
분류/이미지	소재	색채	선/형태	조형미
 전통한복 (조선시대)	여름에는 모시, 삼베, 은조사, 생명주, 생황라 등이 봄과 가을에는 자미사, 갑사, 속황라 등이 겨울에는 공단, 양단, 명주 등이 사용됨	중국의 음양오행설에 근본을 둔 황(黃), 적(赤), 청(靑), 흑(黑), 백(白) 즉 오방정색(五方正色)이 근간을 이룸.	직선과 곡선의 조합미를 기본으로 조화를 이룸. 곡선은 반월형에 가까운 호선의 완만한 곡선을 통해 자연스럽고 편안한 선을 만들어냄.	자연미(간편, 넉넉), 인격미(체면, 신분, 예의), 벽사미(辟邪美-음양오행적, 주술적), 전통미(자극심, 경천사상, 풍류정신)
 김숙진 우리옷	천연섬유인 실코를 주로 사용하고, 특히 명주를 홀두개로 다듬어질해 특유의 수결로 품위와 우아한 선을 만들어내고 있음.	개나리, 배추색 등 자연적이며 단아한 색채를 선호하며 전통 색상인 녹의홍상을 주로 사용하여 한복 고유의 색감을 살림.	전통적 선과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고수하며, 부분적인 개량을 통해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선과 형태를 만들어냄.	전통미, 자연미, 실용성과 활동성
 이영희 한국의상	봄과 여름에는 주로 면, 무명, 모시를 여러 겹으로 포개서 사용함. 가을과 겨울에는 실코의 유무 광택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자연미를 강조.	자연염색과 재래식염색, 화학염색을 겸해 독창적인 색채를 만들어냄. 깊고 은은한 중간톤(쪽빛, 남색, 어두운 분홍색)의 자연적 색채가 주로 사용됨.	상체는 몸에 붙고 아래쪽은 볼륨감 있는 호리호리한 선을 선호하며, 한복 고유의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함.	자연미, 순용미 (다른 개체와 조화를 이루는 안정감), 다양성, 전통의 현대적 해석(염색, 선, 소재의 현대적 변용)

연미와 전통미 등은 소재나 색채, 선 등에서 어느 정도 원형이 보존된 채 수용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복이 가지고 있는 현대의 일상생활에는 약간 부적절한 불편함이 형태적 측면에서 부분적인 개량을 통해 해소되는 것을 <표 2>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색채나 소재 등에서도 전통 색상과 섬유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조금씩 변용을 가하여 현대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한복이라는 의상 분야에서 보이는 시간적 간극을 통한 1차적 조형의식은 전통미와 자연미를 중심으로 전통적 조형미가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실용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현대적 감각으로 변용되어 새로운 개념의 의복으로서 의미를 생성하고 있음을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3.2. 식(食)

현대 한국의 의식주 분야에서 가장 전통적인 특색이 많이 남아 있는 영역이 바로 식생활 부분이다. 근대화 이후에 외래의 음식 문화가 다양하게 소개되면서 점차 서구화되는 식습관이 형성되긴 했지만, 한국의 식생활은 아직까지 밥과 국과 반찬이



<그림 1> 오행

라는 기본 상차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음식을 통해 자연과 일치되어 건강을 지켜나가는 통합과 융통의 가치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곡식을 총칭하는 오곡이 벼·보리·조·콩·기장 등 5가지의 주요 곡식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오곡은 오행의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색으로 보면 노란색은 토, 푸른색은 목, 붉은색은 화, 흰색은 금, 검은색은 수가 되고 맛으로 보면 단맛은 토, 신맛은 목, 쓴맛은 화, 매운맛은 금, 짠맛은 수가 된다. 또한 파종 시기와 열매 맺는 시기가 봄이면 목, 여름이면 화, 가을이면 금, 겨울이면 수, 사계에 걸쳐 생기면 토가 되고 성장환경에 있어 물에서 자란 것은 수, 땅에서 자란 것은 토, 나무에 달린 것은 목, 밭에서 자란 것은 화가 된다.

이처럼 음식과 오행의 기운을 연결시켜 삼재사상(三才思想)¹²⁾ 등의 자연의 순리를 담고 있는 한국의 식문화와 그 식문화 형성을 한 조형원리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일정정도 수용되고 있다. <표 3>을 통해서 보면, 전통 음식을 현대화해서 개발 판매하는 업체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된 마케팅 개념에서 이러한 조형원리를 엿볼 수 있다. 전통적 맛과 메뉴를 고수하는 업체뿐 아니라, 전통 한식과 서구식을 결합한 스타일에서도 전통성과 자연성, 건강성이 공통으로 포함됨을 볼 수 있다. 결국, 현대화된 전통 음식에서 보이는 시간적 간극을 통한 1차적 조형

12)삼재사상은 인간이 세계의 주체로 하늘과 땅 사이에 정위(定位)를 갖게 되고, 이는 세계가 가치(天)와 법칙(地)과 주체(人)의 연대성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은 대체로 큰 변용없이 원형 그대로 또는 일부 보완을 통해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전통과 현대 음식의 조형 원리 분석

분류/이미지	재료/종류	맛	색채/형태	조형원리
전통음식 (조선시대) 	절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채득할 수 있는 재료를 주로 사용하고, 절기에 상관없이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여 사철 음식을 즐김.	한국의 음식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인 오감을 총체적으로 동원해야 함. 양념과 통합의 맛, 계절의 절식(節食), 삭은 맛과 깊은 맛	오방색이 맛과 절기를 상징하며, 오행의 개념을 음식과 연결시켜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킴. 형태는 재료와 양념의 통합을 통해 인공적이기보다는 자연적 형태를 추구.	건강성, 음양, 삼재사상과 상징, 응동성, 통합과 전체성, 다양성
한우리 	쇠고기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사브사브, 로스편채, 등심구이, 국수전골, 곰장전골류 등을 주로 판매.	육류 외에도 다양한 한정식과 일품 메뉴 등을 개발하여 한국적 음식의 맛을 고수함.	각 메뉴별로 자연적인 색감과 형태를 살림.	전통성, 자연성, 다양성
민가다현 	간장과 된장 소스를 기본으로 하는 한식에 퓨전스타일의 서양식 메뉴와 식재료를 혼용하여 사용. 전통차와 와인 판매.	전통 한식과 유럽식 음식이 접합된 자체적으로 개발한 맛.	퓨전 스타일의 색채와 형태로 간장과 된장 소스의 기본 색채에 다양한 재료의 색채와 형태를 살림.	전통성, 응동성, 통합과 전체성, 다양성
현대 음식 유항오리 	게르마늄, 키토산 등을 먹고 자란 유항오리에 한약재와 참쌀밥을 넣어 진흙토기에 넣어 오리가마에서 구운 음식.	유항오리의 한약재 성분을 통해 건강과 맛을 함께 고려.	전통 유항오리 요리법을 살린 색채와 형태 유지. 사이드 메뉴와 후식에서 자연적인 재료의 색감과 형태를 살림.	전통성, 건강성, 자연성, 다양성
배상면 주가 	전통술을 재현하여 문화 상품화하는 마케팅 전략에 맞춰 다양한 전통술 개발 및 판매.	전통술 고유한 맛을 현대화하는데 주력	전통술의 원재료인 자연적 재료의 색채를 살리고, 술을 담은 술병 디자인을 통해 한국적미를 표현.	전통성, 자연성, 통합과 전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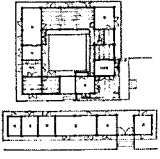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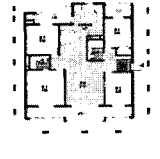
33. 주(住)

주생활이라는 것은 주거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주 의 양상을 의미하고, 이러한 생활양식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한국의 전통주거에서 이루어졌던 생활 행위들은 크게 취침, 식사, 배설, 농사짓기 등의 일, 학습 또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적인 일 등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행위에 필요한 공간적 요구에 따라, 그리고 사회 계급적 차이에 따라 공간이 형성되었다. 전통공간은 크게 ‘-방’과 ‘-간’¹³⁾으로 구분되었고, 방과 간이 모여 기능적, 사회적, 상징적 요구에 따라 ‘채’를 이루고, 채들이 모여 집을 이룬다. 전통주거에서 보이는 생활 행위에 따른 공간적 전용이나 분화는 대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집과 공간을 구성하

13)방은 사람이 자는 곳으로 신을 벗어야하고 깨끗하게 치장되는 공간이다. 간은 짐승이나 물건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신을 신고 활동하는 공간이다.

는 조형원리에서도 주로 음양오행과 풍수에 근간을 둔 자연적 원리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변화와 동일 의 원리가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전통주거의 조형원리는 현대에서 서구식 주거양식의 수용으로 인해 전폭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좌식 생활이 여전히 남아있는 형태나 방이라는 공간의 복합적 사용형태 등에서 전통적 주거의 조형원리가 여전히 현대 한국의 주거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시간적 간극에 따라 변화되어 온 1차적 조형의식을 통해 살펴본 주거의 변화양상은 공간의 외관상의 형태와 내부 공간 구성방식에는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태적 측면에서는 전통주거양식에서 보였던 한국적 생활양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서구화된 주거의 형태에서도 그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한국적 조형원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전통 현대 주거의 조형원리 분석

분류/이미지	숙(宿)	식(食)	변(便)	공(工/公)
전통주거 	방은 바닥이 온돌구조이거나 신을 벗고 들어가는 4면이 둘러싸인 완전한 내부 구조로 이곳에서 좌식 형태의 취침생활과 단란, 접객, 식사 등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일어남.	식사행위는 계절에 따라 방과 마루가 혼용되어 사용됨. 취침은 안방과 별개의 방과 관련된 부속채로 형성됨. 여성전용인 내측과 남성 전용인 외측이 분리되어 건립되기도 함.	축간은 주거 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으로 인식되어 선사시대부터 독립적인 작업공간으로 분화되기보다는 마당, 마루, 부속채 등의 공간에서 가변적으로 이루어짐.	집에서의 작업은 직업별, 절기별로 다양했고, 특정한 작업공간으로 분화되기보다는 마당, 마루, 부속채 등의 공간에서 가변적으로 이루어짐. 남성 중심의 공적인 일은 사랑채에서 주로 이루어짐.
조형원리	건실성, 복합성, 음양, 풍수지리, 상징성	내실성, 복합성, 음양, 풍수지리, 자연성	음양, 풍수지리, 상징성	다양성, 복합성, 허의 중시, 변화와 통일
현대주거 	현대의 방은 좌식과 입식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으나 부부침실에 비해 자녀침실의 입식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취침 이외의 다양한 복합행위가 일어남.	계절에 따른 식사공간의 이동행위는 점차 사라지고, 식당공간이 따로 분화되어 사용됨. 그러나 아직 식탁과 함께 밥상면을 견해 사용하기도 하여 좌식과 입식이 혼재되어 있음.	주거 공간 내부로 욕실과 화장실이 들어왔으나 입식 시설물 배치에 비해 생활행위의 입식경향은 완만하게 진행됨. (세면대는 설치되었으나 밑에 수도를 설치하여 좌식행위를 하고, 욕조의 활용도가 낮음)	현대 주거에서 주거행위 외의 작업은 별도의 작업실을 만들거나 방이나 거실에서 일부 기능을 수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공적인 일은 오피스텔과 같이 전문적으로 분리된 주거형식이 따로 존재함.
조형원리	건실성, 복합성, 전통성	내실성, 전통성	내실성, 합리성	복합성, 다양성

4. 한국의 현대 의식주분야 실내디자인의 한국적 조형의식 분석

3장에서 의식주분야의 조형미와 조형원리를 통해서 본 시간적 간극에 따른 조형의식의 변화는 원용(原用)을 중심으로 현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변용(變用)됨을 볼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거친 의식주의 각 오브제


가 공간 속에 수용될 때 보이는 공간화 수법을 중심으로 한국성이 반영되는 특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통해서 한국적 조형의식이 공간화 될 때 가지는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간에서 담는 내용물이 한국의 전통적인 대상일 때, 그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는 어떤 형식이든지 전통성이나 한국성을 고려하게 된다. 때로는 그 내용물의 한국적인 모티브를 재료나 색채, 또는 형태적으로 해석하거나 공간구성 원리로 해석하면서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현대적 해석을 공간을 통해서 제시하게 된다. 이때 공간을 디자인하는 주체로서 디자이너의 사고체계에는 작가 개인의 조형의식이 작용하게 되고, 그 조형의식은 공간을 통해서 형상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디자인 전개과정을 통해서 표출되는 조형미나 조형원리는 한국적 조형의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1. 의생활 공간

의생활 공간의 연구대상인 김숙진 우리옷 사옥과 이영희 한국의상 매장은 전통 한복을 판매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복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성이 공간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김숙진 우리옷 사옥이 한복의 선과 형태를 오브제로써 공간의 의장적 요소로 활용한 반면에, 이영희 한국의상에서는 한복을 대상으로 하되, 공간 형태나 의장적 요소에서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재료와 색채를 추상화해서 한국적 조형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두 가지 사례에서 모두 한복이라는 오브제는 현대적 의미에서 공간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결국, 전통과 현대라는 시간적 간극을 통해 재해석된 한복이 공간적으로 다시 추상화되어 실내디자인의 중요한 공간화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의생활 공간 분석

	공간화 수법		한국성 수용특성	한국적 조형의식 (공간화 특성)
	오브제	공간		
김숙진 우리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적 장식 요소의 변용을 통한 현대화 마감재와 색채의 자연적, 전통적 요소 추상화, 기능화된 공간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린 흡수 및 변용의 조형의식 단순성의 조형의식
	한복과 장신구의 형태와 선을 형태적으로 단순화해서 의장적 요소로 활용.	용도와 기능에 따라 공간을 분화하고 가구를 중심으로 내부 공간 형성.		
이영희 한국의상 (청담동 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제와 여유(허와 실) 여백의 미 관조하는 옥외 공간 추상적 형태와 은은한 색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유와 추상의 조형 의식 허와 여백의 조형 의식 담백함의 조형 의식
	이영희 의상의 실루엣과 색채를 형태와 마감재를 통해 추상화함.	한복의 곡선과 상반되는 직선적 공간감을 통해 대비적 추상화 수법 사용.		

실내공간에서 표현되는 한국적 조형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2장 2절에서 정리된 <표 1>과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조형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전통적인 조형의식이 현대적으로 해석될 때 수용방식과 표현방식에서 보이는 현대적 조형의식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혼용되어 현대의 한국적 조형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생활 공간에서 표출된 한국적 조형의식은 단순성과 담백함, 허와 여백의 미와 같은 전통적인 조형원리가 현대적으로 해석되었고, 수용방식에 있어서는 두 작품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열린 흡수와 변용이,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은유와 추상의 조형의식이 드러남을 볼 수 있다.

4.2. 식생활 공간

식생활 공간은 의생활 공간과 달리 공간의 내용물인 전통음식이 공간에서 오브제적으로 표현되기 힘든 특색을 갖는다. 이는 한복이 고유의 선과 색채가 조형적인 요소로써 활용되기 쉬운 반면에,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조형성을 논하기가 모호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앞의 3장에서 분석된 결과에서 보듯이 조형미보다는 전통음식이 만들어질 때 구현된 조형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고, 실제 공간화 과정 중에서도 이러한 특색이 드러남을 볼 수 있다. 결국, 공간화 수법 중 오브제를 이용한 방법이 의생활 공간에서 보이듯 공간에 담길 내용물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기 보다는 디자이너 각자가 중시한 한국성이라는 개념에 맞춰 다양하게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식생활 공간의 네 가지 연구대상은 각 사례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네 공간 모두 전통적 소재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지만, 각각의 공간화 수법은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한우리는 네 가지 사례 중에서 판매하는 메뉴나 음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전통적인 특성이 강해야 하는 곳이지만, 공간화 특성에서 보면 가장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공간이다.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의 디자인 초기 의도부터 전형적인 한정식집의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현대적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했다¹⁵⁾는 점에서 볼 때, 의장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적인 특성을 찾기 힘들다. 그에 반해 민가다현은 판매하는 음식은 다른 곳에 비해 가장 현대적인 퓨전스타일이다. 그러나 공간 디자인은 가장 전통적이다. 기존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개량한옥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의장적으로 디자인했다. 판매하는 음식의 현대적인 특성과 공간의 전통적인 특성이 어울려 전체적으로도 복잡과 절충이라는 퓨전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유황오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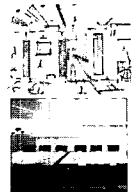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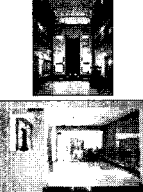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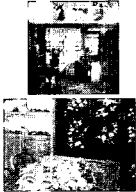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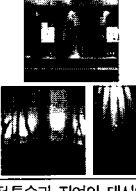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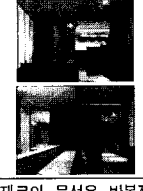
14) 이러한 특성은 한복과 음식이라는 대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공간의 용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자가 주로 사용자가 잠시 머무는 판매,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오브제적 특성을 강조해야 하는 반면에, 후자는 사용자가 장시간 머무는 장소이기에 오브제적 측면보다는 사용하기에 편안하고 용이한 공간적 특성을 강조하게 된다.

15) 2001 한정식 즐기기, 이은경, 공간, 2001년 9월 406호, pp.184~187

휴구이와 배상면 주가는 각각의 판매하는 음식을 공간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측면에서 위의 두 사례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유향오리 진휴구이에서는 진휴과 오리라는 소재를 오브제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의장적 측면에 활용하고, 전체 공간 구성에서도 다양한 한국적 공간 요소를 현대적 재료로 표현하였다. 유향오리 진휴구이점이 오브제와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면, 배상면 주가는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판매대상인 술이라는 대상을 직접 공간적으로 형상화하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가장 운치 있는 시공간으로 달밤이라는 장소를 설정하여 오브제와 공간을 추상화하고 은유적 장소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 보이듯, 식생활 공간에서 표현되고 있는 한국적 조형의식은 앞의 의생활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조형의식인 간결함, 담백함, 조화, 즉물성(卽物性)과 같은

<표 6> 식생활 공간 분석

	공간화 수법		한국성 수용특성	한국적 조형의식 (공간화 특성)
	오브제	공간		
한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하는 음식의 전통적 특성이 공간에서는 배제된 채 대비적으로 처리 • 전통적 매개 공간 개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비와 상징의 조형의식 • 간결함의 조형의식
	판매하는 메뉴나 전통 한식점의 이미지 배제. 오브제적 특징이 거의 없음.	마당, 마루와 같은 전통적 매개공간 개념을 적용하여 공간과 공간을 연계함.		
민가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의 전통미 활용과 보존방향 제시 • 동서양과 전통과 현대성이 절충, 병치되며 공간과 음식에서 퓨전 스타일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 및 절충의 조형의식 • 조화의 조형의식
	구한말 분위기를 살린 소품과 가구를 사용하여 동양과 서양의 질층이 추구.	건축 당시의 개량한옥 구조와 공간을 그대로 원형을 살려 사용.		
유향오리 진휴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브제와 공간을 통한 한국적 요소의 개념적, 장식적 수용 • 추상화, 변용을 통해 현대적 감성에 상응 • 재료의 즉물성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흡수 및 변용의 조형의식 • 즉물적 조형의식
	에어컨 기능을 가진 휴의 진휴기동이나 솟대 등의 전통적 오브제를 추상화.	방, 뒷마루, 마당 등의 전통주거 공간형식을 이용하여 한국적 공간감 형성.		
배상면 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브제를 통한 장소의 은유적 표현 • 추상적 형태와 은은한 빛 표현 • 한국적 요소의 개념적, 추상적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유와 추상의 조형의식 • 담백함의 조형의식
	전통술과 자연의 대상인 나무 오브제를 차용하여 달밤이라는 장소성 형성	재료의 물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전체 공간에 통일성 부여.		

조형원리가 구현되었고, 현대적 조형의식으로는 대비와 상징, 복합과 절충, 열린 흡수와 변용, 은유와 추상과 같은 개념이 각각의 디자이너와 공간 유형에 따라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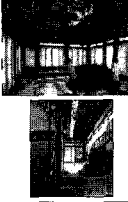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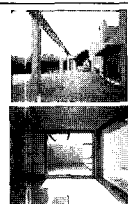



4.3. 주생활 공간

위의 사례들과 달리 주생활 공간은 공간화 수법 상에서 공간에 담기는 내용물의 성격을 띠는 오브제적 표현을 고찰하기가 힘들다. 오브제 자체가 공간이 되는 주생활 공간에서는 위와 같은 접근방법보다는 주거공간을 물리적으로 형성하는 조형요소를 중심으로 공간화 수법을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의 실내공간의 주요한 조형미는 크게 구조와 의장에서 보인다. 한국건축의 조형미는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역학적 구조의 단순미와 실내공간의 의장적 측면의 담백한 미에 있다.¹⁶⁾ 이러한 측면에서 주생활 공간의 공간화 수법을 살펴보는 틀은 구조와 의장적인 측면의 조형요소와 공간 구성 원리가 된다.

주생활 공간의 연구대상인 네 가지 사례는 한국적 조형의식 측면에서 볼 때, 전통공간의 보존과 계승, 수용과 변용, 은유와 추상, 상징과 추상이라는 표현방식을 각기 대표하는 사례들로 선정되었다. 능소현과 청송재는 개량한옥을 조형적 측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부분적으로 전통적 공간의 연계성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보존과 계승의 조형의식에 의해 표현된 한국적 공간화 표현특성은 형태적 해석이 강한 직설적 표현이 주가 되었다. 미제루는 수용과 변용을 통해 한국적 조형의식을 표출한 사례이다. 형태적 측면에서도 누마루라는 조형적 요소를 현대적 재료와 구조로 재해석하여 '채'라는 개념의 전통적 공간감을 형성하는 주요한 모티브로 삼았다. 이 주택에서 표현된 공간화 특성은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재현과 공간구성 원리라는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현대적 수용을 들 수 있다. 수백당은 위의 두 사례와는 달리 형태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조형의식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구성 원리 측면에서 허와 실이라는 공간 구성법이 주택 전체를 관통하며 유기적으로 경계와 영역을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적 공간 구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앳더몬은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이 복합된 기능의 공간으로 전형적인 주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점차 주거의 유형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앳더몬은 건축주이자 디자이너가 동일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의도가 섬세하게 표현된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보이는 한국적 조형의식은 상징과 추상으로 대표된다. 실내의 다양한 의장적 요소에서부터 전체 공간의 구성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적 감성이 상징과 추상이라는 조형원리를 통해 공간화 되었다

16)김영기, op. cit., pp.277-280

<표 7> 주생활 공간 분석

	공간화 수법		한국성 수용특성	한국적 조형의식 (공간화 특성)
	조형요소 (구조/의장)	공간		
능소 현과 청송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가옥의 공간, 의장 보존전략 제시 • 한국적 요소의 직설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과 계승의 조형의식
	전통적 구조, 형태, 재료를 원형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	전통가옥의 공간구조를 살리며 자투리 공간을 통해 공간의 연계성 형성.		
미제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당, 누마루, 채개념 등 한국적 공간구성원리 현대적 해석 • 누마루의 형태적 재현을 통해 한국적 공간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과 변용의 조형의식
	누마루를 현대적 재료로 복원하고, 간결한 의장적 형태와 재료로 실내마감.	채의 개념을 통해 내부와 외부공간의 관계를 현대적으로 해석.		
수백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경계와 영역에 대한 현대적 해석 • 열림과 닫힘의 유기적 공간감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유와 추상의 조형의식
	실내 5개 실의 7개의 백색의 방이 모여 전체 건물 구조 형성.	전통적 공간구성법인 상대적 구성을 통해 여백을 중시한 유기적 공간형성.		
옛더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와 업무의 복합기능을 공간의 전이와 중첩을 통해 표현 • 유기적, 상징적인 조형요소와 공간구성법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과 추상의 조형의식
	벽의 질감, 한지, 한지 블록, 한식 마루 테이بل 등 한국적 조형요소 활용.	현관에서 중정을 통한 공간들의 중첩을 통해 전통적 장소의 전이를 형상화.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본 한국의 현대 주생활 공간에서 보이는 한국적 표현특성은 디자이너의 조형의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복이나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상업공간과는 달리 오브제에서 요구되는 전통성 해석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 주거공간에서 한국적인 모티브와 정신을 공간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주체의 의식이 없으면 실현되기 힘들다. 전통적 조형의식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디자이너 개개인의 확고한 입장과 태도를 통해서 전통적 조형의식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표출되는 것이다.

5. 결론

현대 한국의 의식주 공간에서 보이는 한국적 조형의식은 전통적 조형의식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단순성, 담백함, 허와 실, 조화의 원리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조형의식이 크게 수용방식과 표현방식의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새롭게 재정의 되고 있다. 우선 수용방식의 측면에서는 보존, 계승, 복합, 절충, 열린 흡수, 수용, 변용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전통적 조형의식을 현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표현방식 측면에서는 은유, 상징, 추상, 대비와 같은 방법으로 전통적 조형의식에 새로운 현대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적 조형의식이라는 것은 과거라는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현대적으로 재고찰되고 재해석되는 대상인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와 도시화 이후에 대두 되었던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전통과의 단절에서 야기된 괴리감의 문제와 서구문물의 무비판적 수용방식의 문제에 있었다. 또한 과거와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할 대상이나 또는 극복해야할 대상으로만 본다면 전통과 현대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더 이상 진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한국적 조형의식에서와 같이, 전통을 고정되어 있는 숭고의 대상이 아닌 현재적인 의미에서 끊임없이 다듬고 수정해야할 대상으로 본다면, 전통성이나 한국성은 더 이상 추상적으로 현실과 괴리된 개념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전통에 대한 현대적 접근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체의 의식이다. 실내디자인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개개인 디자이너들의 주체의식이 모이면 공동의 공감대와 미의식이 형성된다. 그렇게 형성된 미적 공감대에 굳이 '한국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한국만의 고유한 감성과 특성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현대 실내공간에서 보이는 한국적 조형의식이 가진 수용과 표현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적 정체성 회복이라는 공통의 화두에 하나의 작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영환, 집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2000
2.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9
3. 공간디자인비평연구회, 공간 속의 디자인 디자인 속의 공간, 효형출판, 2003
4. 정화열, 몸의 정치, 민음사, 1999
5.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6. 이연숙, 한국인의 창의성과 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7. 한국산업디자인학회 통상 산업부, 한국적 디자인 응용사례 연구, 1997, <http://chonhyang.com/html/korea/home.htm>
8. 이주희, 물성에 의한 현대 실내건축의 한국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논문, 2003. 12.

<접수 : 2004. 8. 31>